

Life's Good... When it's green

LG전자



LG 전자는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이 소비자들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친환경 경영과 제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생산활동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LG전자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발굴하여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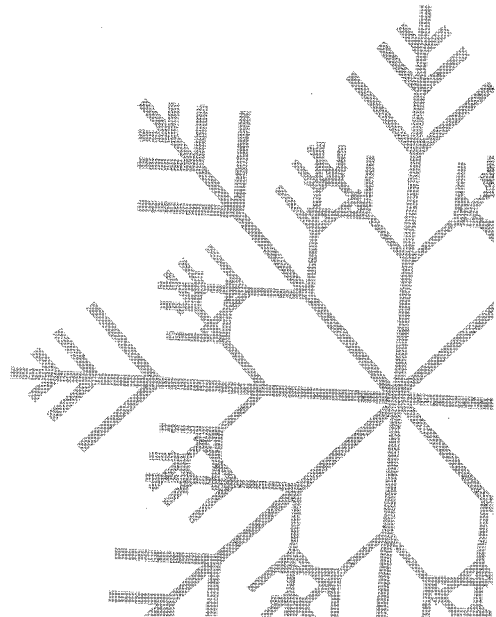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 및 감축 활동

LG전자는 2009년에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으로서 환경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LG전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뿐 아니라 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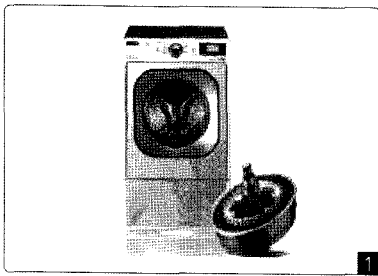
이를 위해 LG전자는 국내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3자 검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정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초 감축 목표 발표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LG전자는 사업장 및 제품 사용단계 포함해서 57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세계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한국위원회에서 한국기업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잘하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저탄소 그린경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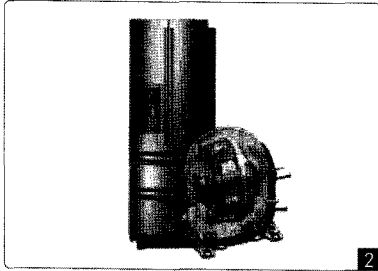
LG전자의 저탄소 그린경영 전략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제반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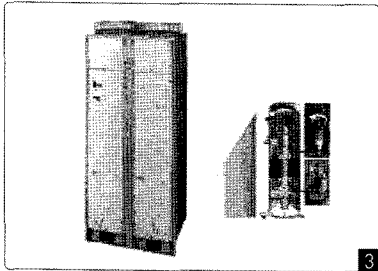
맞춘 온실가스 감축, 제품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사용단계 온실가스 감축, 가치 사슬 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관리 그리고 저탄소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저탄소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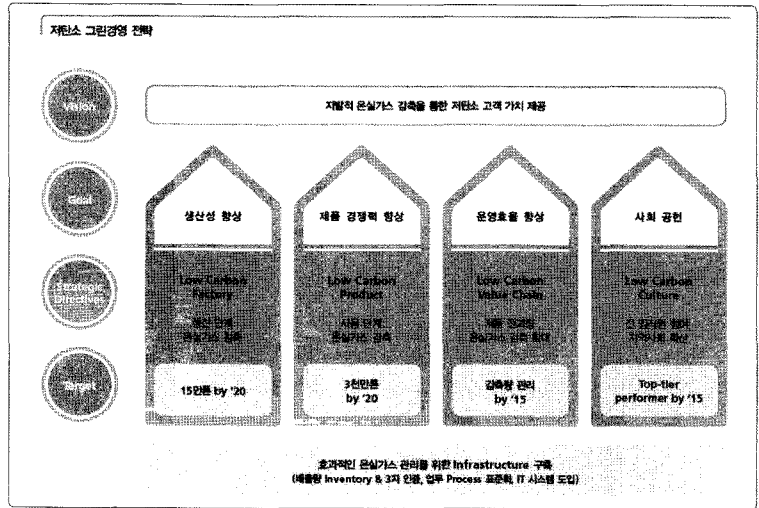
2



3

- 1. 드럼세탁기 FR3228WA
- 2. 냉장고 컴프레서 FC140NEM
- 3. 에어컨 컴프레서 GJT240DAA, GKT141DAA

LG전자 환경전략팀 |
 tel.02-526-4118 | greenlg@lge.com
 www.lge.co.kr



저탄소 제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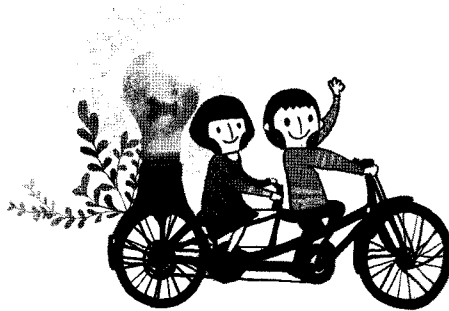
LG전자는 제품 전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단계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단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자사의 세탁기가 환경부 주관 한국 탄소성적표지 시범 인증에 참여하여, 2009년 세탁기 분야에서는 최초로 탄소성적표지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냉장고, 에어컨 컴프레서 등 부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전자는 탄소성적표지 등을 통해 제품 탄소발자국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녹색구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저탄소 문화 구축 및 확산

온실가스 저감노력은 사무공간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 전 임직원의 기후변화 의무교육을 실시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 출장을 화상회의로 대체, PC 절전모드 활용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LG전자는 임직원 개개인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고, 이러한 실천을 고객 및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산함으로써 저탄소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LG전자의 노력은 고유의 '저탄소 기업문화'

라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임직원 가치제고 및 실천유도를 위해 경영진의 메시지 전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 활동 소개 및 온실가스 줄이기, 잔반 줄이기, 에너지 절감 경진대회 등 다양한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러한 저탄소 문화 확산 및 다양한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업무영역에서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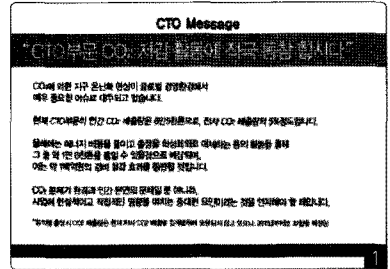


환경에너지 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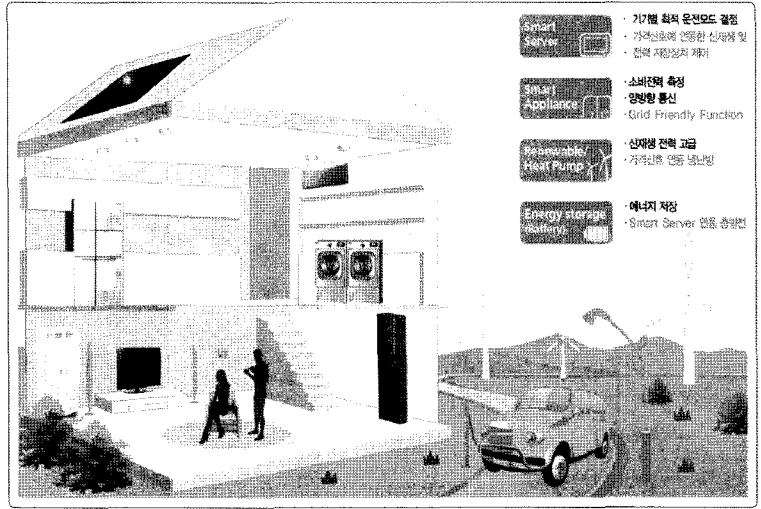
LG전자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된 환경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LG전자는 solar cell, LED 등 에너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서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G전자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초반부터 홈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상품 출시를 통하여 원격제어를 구현하는 제품을 개발해 왔고, 더 나아가 스마트 그리드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군에 있어서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 십 년간의 전자산업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스마트 가전(Smart Appliance)와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LG전자는 한국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에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컨소시엄에는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텔레콤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여, 전기, 전자, 통신, 배터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는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플레이스(Smart Place)를 구현하고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포함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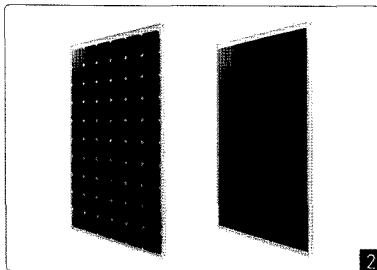


1.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영진의 메시지 전달
2. LG전자 창원공장의 잔반줄이기 캠페인



LG전자는 다년간의 기술개발(R&D)를 바탕으로 솔라셀(Solar Cell)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2010년 초에 양산을 시작으로, 2라인 모두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한 태양전지 셀과 모듈을 생산하게 된다. LG전자의 태양광 모듈 시험소가 2009년 10월, 유럽의 규격인증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트(TV Rheinland)로부터 태양전지모듈 공인시험소로 지정되었고, 2010년 2월에는 미국의 UL로부터 세계 최초로 그린에너지 시험소(Green Energy Test Lab)로 지정이 되었다.

1. 한국 구미에 설립된 Solar Cell/Module 공장 전경
2. LG전자의 Solar Cell/Module



이 뿐만 아니라 LED Lighting 사업에도 진출하였으며, LG전자의 지열히트펌프 등과 같은 고효율 제품과 더불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